

생명사랑,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주간 2017. 03. 27. ~ 2017. 04. 02.

전남농업정보

130
VOL

기상전망

농산물 주간 동향 (관측정보)

- 쌀 재배의향면적 및 재고량
- 맥류·마늘·양파 재배면적 및 생육상황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순천시, 농수산물품 270만달러 수출 계약 체결
- 국산 접목선인장! 우리나라에서 미리 관리 받고 3개월 먼저 호주 소비자 품으로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벚꽃 만개시기에 맞춰 사료작물 파종 하세요 ~
- 이열대채소 오코라 육묘비용 절감 직파재배 기술개발

정책동향

- 전남도, 전국 첫 농촌인력지원센터 발대
- 농업기술원 쌀 안정생산 및 소비촉진에 앞장 !

사업신청 및 홍보

- 청명·한식, 묘 주변 소각행위 삼가세요
- 수출기업 홍보 동영상상품 카탈로그 제작 지원

목차 및 요약

1. 주간 기상전망 5

- ▶ 기압골의 영향으로 6~7일은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3~9도, 최고기온: 16~1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음
- ▶ 강수량은 평년(2~6mm)보다 많겠음

2.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8

- ▶ 예보 : 벼 종자전염성 병해충, 양파·마늘 잎마름병, 노균병, 잎집썩음병, 고자리파리, 뿌리응애 등
- ▶ 매실 복숭아씨살이좀벌

3.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11

- ▶ 쌀 재배의향면적 및 재고량
- ▶ 맥류·마늘·양파 재배면적 및 생육상황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13

- ▶ 순천시, 농수산물 270만달러 수출 계약 체결
- ▶ 국산 접목선인장! 우리나라에서 미리 관리 받고 3개월 먼저 호주 소비자 품으로

5.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6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6.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18

- ▶ 비가림 하우스 열무 무경운 유기재배 시 계절별 수확 소요일수
- ▶ 지치 비가림 재배 시 적정 파종시기
- ▶ 부바르디아 배지경의 여름출하에 알맞은 줄기 전정 높이
- ▶ 벼꽃 만개시기에 맞춰 사료작물 파종 하세요 ~
- ▶ 아열대채소 오크라 육묘비용 절감 직파재배 기술개발
- ▶ 농가 소득 올리는 땅콩, 우수한 종자 준비부터
- ▶ 배·복숭아 꽃 피는 시기, 평년보다 1~6일 빠를 듯
- ▶ 과일나무 꽃피는 시기 이상기상 대비 철저히 해야
- ▶ 벼농사의 시작! 벼씨소독으로 키다리병 예방
- ▶ 유기재배 차 생산을 위한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

7. 정책 동향 34

- ▶ 전남도, 전국 첫 농촌인력지원센터 발대
- ▶ 농업기술원 쌀 안정생산 및 소비촉진에 앞장 !
- ▶ 전남농기원, 발작물 범용 이식기 개발 추진

8. 전남 시군 농정 동향 37

- ▶ 고흥군, 농기계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육생 33명 추가모집
- ▶ 보성군, 우량 씨감자 생산·공급체계 개선
- ▶ 화순군, 복숭아 브랜드 경쟁력 강화 팔 걷어
- ▶ 장흥군, 돈 되는 숲 『야생 녹차밭』 가꾸기

- ▶ 강진군, 무료 토양검정으로 봄철 영농 시작
- ▶ 해남군, 고품질 황토 인삼재배 박차
- ▶ 함평군, 귀농·귀촌 지원정책 안내서 제작
- ▶ 영광군, 옥당동부 공급 희망량 신청 안내
- ▶ 신안군, 맛나제 잡곡외식사업장 개소식 개최

9. 해외 농업정보 46

- ▶ 니카라과에 KOPIA 센터 설치 업무협약
- ▶ 해외 곡물시장 동향 '17. 4. 3.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밀 선물 가격은 미 농무부의 파종량 발표 이후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파종량 전망으로 전일대비 상승 마감하였음
 - 옥수수 : 옥수수 선물 가격은 금요일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파종량이 전망되면서 전일대비 상승하였음
 - 대두 : 대두 선물 가격은 금요일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파종량이 전망되면서 최근 수개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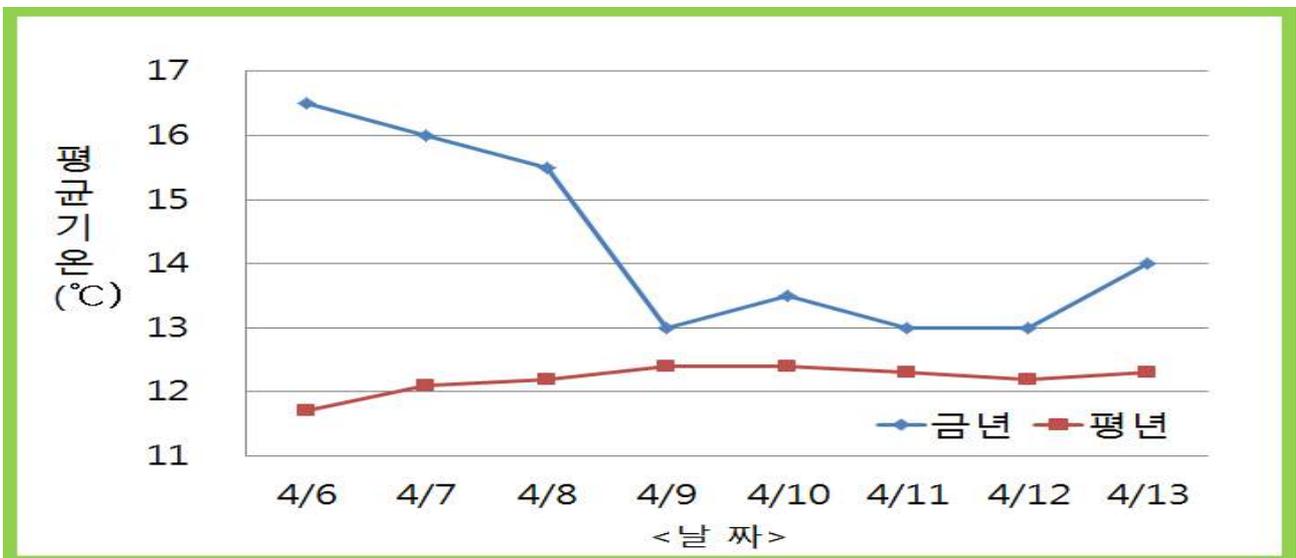
10.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49

- ▶ 청명·한식, 묘 주변 소각행위 삼가세요
- ▶ 수출기업 홍보 동영상상품 카탈로그 제작 지원
- ▶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청명(淸明), 24절기 가운데 다섯 번째 절기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4월 6일 ~ 4월 13일, 광주 기준)

- 평균기온 : 14.3℃ (평년대비 2.1℃ 높음)
- 최고기온 : 18.9℃ (평년대비 0.3℃ 높음)
- 최저기온 : 9.8℃ (평년대비 3.1℃ 높음)
- 강수량 : 2.3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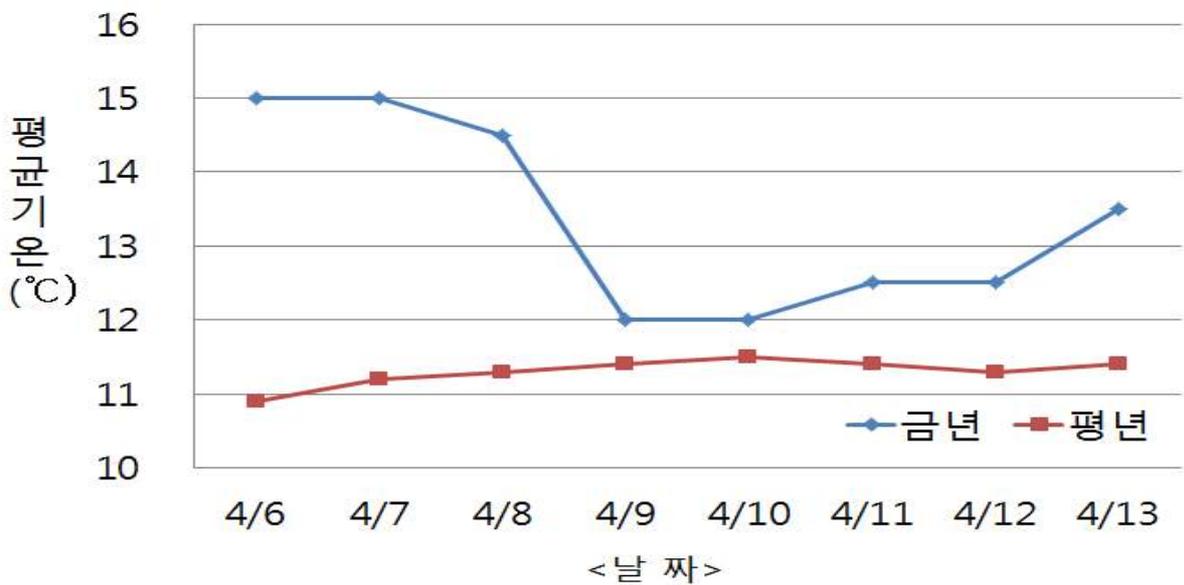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14.3	12.2	2.1	18.9	18.5	0.3	9.8	6.7	3.1	2.3
4. 06.(목)	16.5	11.7	4.8	19.0	18.4	0.6	14.0	5.8	8.2	1.7
4. 07.(금)	16.0	12.1	3.9	19.0	18.6	0.4	13.0	6.3	6.7	2.3
4. 08.(토)	15.5	12.2	3.3	19.0	18.4	0.6	12.0	6.8	5.2	2.5
4. 09.(일)	13.0	12.4	0.6	17.0	18.6	-1.6	9.0	7.0	2.0	2.2
4. 10.(월)	13.5	12.4	1.1	19.0	18.6	0.4	8.0	7.1	0.9	2.7
4. 11.(화)	13.0	12.3	0.7	19.0	18.4	0.6	7.0	7.0	0.0	2.8
4. 12.(수)	13.0	12.2	0.8	19.0	18.5	0.5	7.0	6.8	0.2	2.2
4. 13.(목)	14.0	12.3	1.7	20.0	18.8	1.2	8.0	6.7	1.3	2.0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4월 6일 ~ 4월 13일, 목포 기준)

- 평균기온 : 13.4°C (평년대비 2.2°C 높음)
- 최고기온 : 16.8°C (평년대비 0.1°C 낮음)
- 최저기온 : 10.0°C (평년대비 2.8°C 높음)
- 강수량 : 2.2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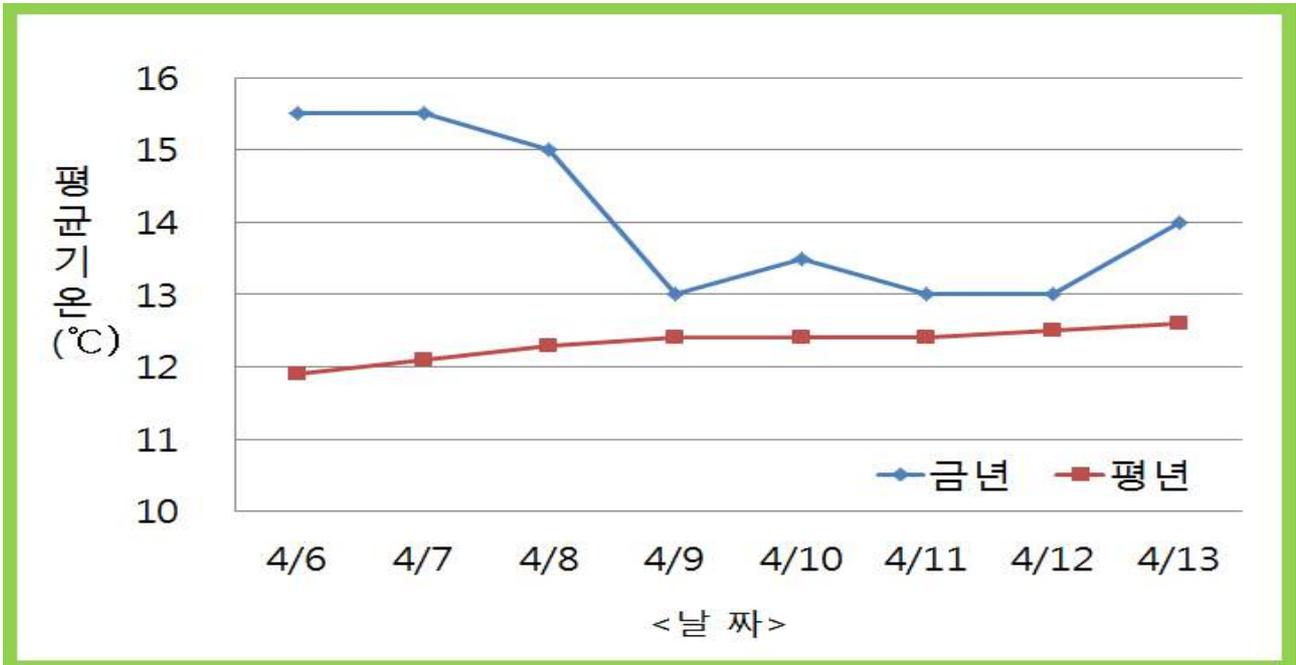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13.4	11.3	2.2	16.8	16.9	-0.1	10.0	7.2	2.8	2.2
4. 06.(목)	15.0	10.9	5.0	17.0	16.6	0.4	13.0	6.5	6.5	1.6
4. 07.(금)	15.0	11.2	3.8	17.0	16.9	0.1	13.0	7.0	6.0	2.2
4. 08.(토)	14.5	11.3	3.2	17.0	16.8	0.2	12.0	7.2	4.8	2.3
4. 09.(일)	12.0	11.4	0.6	15.0	16.9	-1.9	9.0	7.4	1.6	2.3
4. 10.(월)	12.0	11.5	0.5	16.0	16.9	-0.9	8.0	7.5	0.5	2.6
4. 11.(화)	12.5	11.4	1.1	17.0	16.9	0.1	8.0	7.4	0.6	2.6
4. 12.(수)	12.5	11.3	1.2	17.0	16.9	0.1	8.0	7.3	0.7	2.0
4. 13.(목)	13.5	11.4	2.1	18.0	17.1	0.9	9.0	7.2	1.8	1.8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4월 6일 ~ 4월 13일, 여수 기준)

- 평균기온 : 8.2°C (평년대비 0.7°C 높음)
- 최고기온 : 12.9°C (평년대비 1.2°C 높음)
- 최저기온 : 3.5°C (평년대비 0.5°C 낮음)
- 강수량 : 2.8mm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14.1	12.3	1.7	17.0	16.5	0.5	11.1	8.8	2.3	4.2
4. 06.(목)	15.5	11.9	3.6	17.0	16.1	0.9	14.0	8.3	5.7	2.3
4. 07.(금)	15.5	12.1	3.4	17.0	16.3	0.7	14.0	8.6	5.4	3.7
4. 08.(토)	15.0	12.3	2.7	17.0	16.4	0.6	13.0	8.9	4.1	4.5
4. 09.(일)	13.0	12.4	0.6	16.0	16.5	-0.5	10.0	8.9	1.1	4.4
4. 10.(월)	13.5	12.4	1.1	17.0	16.5	0.5	10.0	9.0	1.0	5.4
4. 11.(화)	13.0	12.4	0.6	17.0	16.6	0.4	9.0	8.9	0.1	5.6
4. 12.(수)	13.0	12.5	0.5	17.0	16.8	0.2	9.0	8.9	0.1	4.2
4. 13.(목)	14.0	12.6	1.4	18.0	16.9	1.1	10.0	9.0	1.0	3.7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2017. 04. 01. ~ 04. 30.)

농촌진흥청은 벼 종자전염성 병해충, 마늘·양파, 시설재배 작물 및 과수 등을 대상으로 4월 중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병해충에 대한 발생정보를 발표하오니 피해를 받지 않도록 농작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보 : 벼 종자전염성 병해충

- 종자소독을 철저히 하여 키다리병, 도열병, 깨씨무늬병, 벼잎선충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소독 후 약제는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처리하여 버림

□ 예보 : 양파·마늘 잎마름병, 노균병, 잎집씩음병, 고자리파리, 뿌리응애 등

- 적절한 보온과 환기를 실시하여 시설 내의 온·습도가 알맞게 유지 되도록 관리하며, 병에 걸린 잎과 과실은 발견 즉시 제거하고 예방적으로 적용약제 살포

□ 예보 : 과수 갈색날개매미충, 검은별무늬병, 붉은별무늬병 등

- 갈색날개매미충은 산란피해를 받은 가지를 제거하고 약충이 깨어나오면 적용약제로 방제하며, 사과·배의 검은별무늬병과 붉은별무늬병은 발생 전에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의 예측정보에 따라 적용약제로 방제

□ 예보 : 검역병해충(과수 화상병 등)

- 화상병 미발생 지역은 개화(배) 혹은 신초(사과) 발아 직전에 동제 화합물을 처리하고 발생지역은 만개 5일 후부터 2회 적용약제 살포

※ 본 병해충 발생정보는 <http://nongsaro.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매실 복숭아씨살이좀벌

○ 피해와 진단

- 2012년 전북 순창에서 첫 발생 이후 광양·순천·구례 등 모든 지역에서 발생
- 1년에 1회 발생하며 매실·복숭아·살구·자두 등 핵과류에 피해를 줌
- 과실의 씨방속에서 애벌레로 월동하여 이듬해 꽃필 무렵 번데기를 거쳐 성충이 되어 어린 열매 속에 1개씩 산란 함
 - 유충(2월)→성충(3월 하순)→산란(4월)→성충 1마리가 100여개 알 산란
- 알에서 부화한 애벌레는 매실속에서 씨방을 갉아 먹으며 성장하여 수확기 무렵 과피가 갈색으로 함몰되어 낙과 및 상품성이 없는 과일 발생



좀벌 유충



산란 과정



피해과

○ 발생예찰 및 방제

- 좀벌은 과실속에서 월동하므로 나무에 달려 있거나 낙과 된 과실을 수거하여 매몰 또는 소각
- 좀벌의 성충 산란시기(개화 후 20일~)를 확인하여 가급적 공동방제
 - 과실직경이 콩알 만한 시기(10mm 내외)에 1차 방제하고 7일후 2차 방제
- 나무에 붙어있거나 떨어진 피해과를 수거해서 제거
- 방제적기 : 매실직경이 10mm 내외(4월 중순)일 때 1주일 간격으로 2~3회 적용약제 살포

매실에 등록된 살충제

계 통	품 목 명	대 상 해충	위 해 성
합성 피레스로이드계	감마사이할로트린 캡슐현탁제	매실애기 잎말이나방	- 꿀벌에 피해 있음 - 꽃이 피어있는 동안 사용 금지
	델타메트린유제	매실애기 잎말이나방	- 누에 장기간 독성 있음 - 뽕나무밭 주위 사용 금지
네오 니코티로이드계	디노테퓨란수화제	초록애미충, 선녀벌레	- 꿀벌에 피해 있음 - 꽃이 피어있는 동안 사용 금지
	디노테퓨란입상수화제	깍지벌레류	- 꿀벌에 피해 있음 - 꿀벌방사지역 및 매개곤충(꿀벌)에 의해 수정되는 작물에 사용 금지
항생제	아바멕틴유제	초록애미충	- 꿀벌에 잔류독성 강함 - 꽃이 피기 5일전부터 꽃이 피어있는 동안에는 사용 금지
혼합제 (유기인계+ 이미다졸리딘계)	클로르피리포스+ 이미다클로프리드 수화제	붉은테두리 진딧물	- 꿀벌에 잔류독성 강함 - 꽃이 피기 6일전부터 꽃이 피어있는 동안에는 사용 금지
클로로 니코티닐계	아세타미프리드수화제	초록애미충, 붉은테두리진딧물	- 싹포한 후 꿀벌 방사시 약액이 마른 후 방사
	클로티아니딘액상수화제	초록애미충, 선녀벌레	- 꿀벌에 독성 강함 - 꽃이 피어 있는 동안이나 꿀벌이 왕성한 활동을 하는 동안에 싹포 금지
	티아메독삼입상수화제	붉은테두리진딧물, 선녀벌레	- 꿀벌에 독성 강함 - 꽃이 피어 있는 동안이나 꿀벌이 왕성한 활동을 하는 동안에 싹포 금지
	티아클로프리드액상수화제	초록애미충	- 꿀벌에 비교적 안전
유기인계	페니트로티온유제	매실애기 잎말이나방	- 꽃에 약해 우려됨 - 약해 우려되므로 중복싹포 금지
니아신계	플로니카미드입상수화제	붉은테두리진딧물	- 꿀벌에 비교적 안전
피리딘 아조메틴계	피메트로진수화제	붉은테두리진딧물	

※ 자세한 사항은 작물보호제(농약) 지침서 참조

○ 유기농자재의 복숭아씨살이좀벌 성충 살충효과

자 재 명	주 성 분	싹포농도	살 충 율(%)	
			1일후	3일후
박메루플러스	고삼, 계피	500	95	99
멸충대장골드	식물추출물	1,000	95	99
선 초	넙	1,000	70	90
슈퍼선	젯나무오일	300	40	80
지누리	조합나무	2,000	80	90
충전사	피마자유	1,000	20	99
충싸이드	고삼	500	90	99
젠타리	바실러스	1,000	30	80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3.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쌀 재배의향면적 및 재고량

- 2017년 농가 벼 재배의향면적 76만 1천ha(3월 초 기준)
 - 금년 정부는 『2017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통해 2017년 벼 재배면적을 전년보다 3만 5천ha 감축하여 적정 쌀 생산을 유도할 계획
 - 논벼 표본농가 조사결과, 정부정책 효과를 제외한 2017년 농가 벼 재배의향면적은 전년대비 2.2% 감소한 76만 1천ha
 - 현재 정부 정책이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향후 영농계획을 결정하지 못한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표본농가 조사(3월초 실시)에서는 정부정책(쌀 적정생산 유도)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산지유통업체 재고량 전년대비 적은 수준
 - 수확기 이후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 매입은 줄고 쌀 판매량은 늘어남에 따라 2017년 2월말 산지유통업체의 재고량은 전년대비 7%(8만 4천톤) 감소한 112만 6천톤
 - 농업관측본부 표본농가 조사결과, 2017년 2월말 농가 재고량은 정부 및 RPC로의 출하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6.4% 감소
- 2016양곡연도 1인당 쌀 소비량 전년대비 1.6% 감소
 - 2016양곡연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전년대비 1.6% 감소한 61.9kg으로 소비량 감소폭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소비감소율(2.5%)보다 적은 수준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맥류 · 마늘 · 양파 재배면적 및 생육상황

□ 맥류

- 재배면적 : 15,908ha(가을과종 11,366, 봄과종 4,542)
 - 봄과종 확대로 전년 19,368ha 대비 82% 수준 확보(보리 11,968, 밀 3,940)
- 생육상황 : 전반적인 생육양호(경수 전·평년대비 많음)
 - 초장 : 18.7cm(전년대비 0.6cm 작고, 평년대비 1.4cm 큼)
 - 경수 : m²당 1,053개(전년대비 284개, 평년대비 234개 많음)

□ 마늘

- 재배면적 : 5,099ha(전년 5,425ha 대비 6% ↓) - 전국의 23%
 - 주 지역 : 고흥 1,342, 해남 1,008, 신안 728, 무안 519ha 등
- 생육상황 : 기상여건 양호하여 최근 생육호전
- 포전거래 : 상인들 가격 불확실성으로 관망세, 포전거래 전년 보다 감소
 - 가격(3.3m²당) : 13~14천원(전년 11~13천원 대비 13%↑)

□ 양파

- 재배면적 : 9,521ha(전년 9,171ha 대비 4% ↑) - 전국의 48%
 - 주 지역 : 무안 2,860, 신안 1,132, 함평 788, 해남 720ha 등
 - 조생종(16%) : 1,534ha(무안 489, 고흥 477, 해남 113)
- 생육상황 : 초기 정식지연 등 생육 부진하였으나 현재 생육 양호
- 가격(조생종, 3.3m²당) : 13~14천원(전년대비 27% ↑, 거래율 90%)
 - 조생양파 첫 출하(3.27., 고흥) : 4kg당 5,100원, 전년 4,500원 대비 13% ↑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순천시, 농수산물식품 270만달러 수출 계약 체결

-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참가, 우리 농수산물식품 해외 출항 준비 완료 -

- 순천시는 3월 23일 목포 샹그리아비치 호텔에서 해외시장의 안정적 개척과 수출 거래선 발굴을 위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 참가했다.
- 이번 수출상담회는 미국·일본·인도네시아 등 8개국 17명의 해외 바이어를 초청했으며, 순천시는 6개 업체가 참가해 270만달러 (약 30억원)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관내 농식품의 수출 판로에 불을 지폈다.
-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새순천양조영농조합법인 막걸리가 200만 달러, 매일식품 장류가 70만달러 계약을 완료했으며, 덕동원의 돼지 감자차, 미가식품의 함초소금, 씨스타의 해조류 등도 3개국에 테스트 판매키로 바이어와 협약했다.
- 작년에 새롭게 공장을 신축해 전통주를 생산하고 있는 새순천 양조영농조합은 막걸리의 해외진출을 위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막걸리 살균기술을 이용해 순천의 대표 막걸리인 순천미인 막걸리·유자막걸리·허니(꿀)막걸리 등 다양한 층의 입맛을 사로잡을 방침이다.
-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5천명의 세계 4위 인구대국으로 300여 민족이 살고 있으며, 『다양성 속의 통합』을 국가기조로 다양한 문화, 식품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 향후 이들 식탁에 우리 막걸리의 은은한 향이 퍼지길 기대해 불만하다.

* 출처 : 순천시



■ 국산 접목선인장! 우리나라에서 미리 관리 받고 3개월 먼저 호주 소비자 품으로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우리나라에서 미리 양묘장을 등록한 후 재배 중 수출 요령에 따라 관리를 받은 접목선인장은 호주에서 통관 후 격리재배 없이 바로 시장 판매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 격리재배(post-entry quarantine) : 수입 식물 중 재식용 묘목과 화훼구근 등은 수입 시에는 병원체 감염여부 확인이 어려워 일정기간 요건을 갖춘 시설에서 격리된 상태로 재배되면서 검사를 받는 검역조치

○ 호주는 세계적으로 식물 검역이 까다로운 나라 중 하나이다. 호주 식물검역당국은 접목선인장을 중급 위험품목으로 분류하고 수입 후 3개월 동안 국가에서 지정한 격리재배 시설에서 재배하면서 잠복되어 있는 병해충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국산 접목선인장에 대해 검역본부는 2012년 11월에 호주 식물료 제공, 양국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하여 양국은 2016년 12월 격리재배 면제 요건에 최종 합의하였다. 사전 재배지 관리로 접목선인장의 호주 현지 격리재배가 면제된 사례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 호주 식물검역당국이 호주 수입요건에 국산 접목선인장 격리재배 면제 요건을 반영함에 따라 검역본부도 『호주 현지 격리재배 면제를 위한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을 2017년 3월 28일자로 제정·시행할 예정이다.

- 국산 접목선인장은 선명한 색상의 고품질을 기반으로 세계시장의 7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는 저렴한 인건비와 시설 투자로 접목선인장 시장에 뛰어들어 국산 접목선인장의 수출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국내에서 생산·재배·관리 후 호주에서 격리재배가 면제되면 활착률, 유통 등이 개선되어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수출물량 확대도 기대된다. 현재 국산 접목선인장은 연간 약 30만주가 호주로 수출되고 있다.
- 검역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산 농산물의 수출 확대 및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하여 전략적인 검역협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5.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7. 04. 03.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4/03)	1주일전 (03/2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량 작물	쌀(일반계)	20kg	31,800	31,800	31,800	36,200	42,133	↓ 12.2	↓ 24.5
	콩(백태)	35kg	172,000	172,000	172,000	150,000	160,033	↑ 14.7	↑ 7.5
	고구마(밤)	10kg	26,000	26,000	26,000	28,450	26,590	↓ 8.6	↓ 2.2
	감자(수미)	20kg	33,400	34,400	35,520	31,800	28,920	↑ 5.0	↑ 15.5
채 소 류	배추(월동)	1kg	930	990	976	1,430	929	↓ 35.0	↑ 0.1
	양배추	10kg	7,200	9,800	12,800	8,575	6,660	↓ 16.0	↑ 8.1
	오이(다다키계통)	10kg	19,667	20,333	27,467	24,750	26,650	↓ 20.5	↓ 26.2
	애호박	8kg	15,400	15,800	22,960	17,000	19,353	↓ 9.4	↓ 20.4
	건고추(화건)	60kg	570,000	570,000	564,000	756,000	818,667	↓ 24.6	↓ 30.4
	풋고추	10kg	42,800	48,400	72,480	48,150	49,577	↓ 11.1	↓ 13.7
	마늘(깐마늘)	20kg	142,000	142,000	143,600	163,500	119,547	↓ 13.1	↑ 18.8
	양파	20kg	31,000	27,800	27,880	30,200	18,776	↑ 2.6	↑ 65.1
	당근	20kg	39,000	35,600	45,240	25,550	23,757	↑ 52.6	↑ 64.2
	대파	1kg	2,650	2,700	2,936	2,360	1,677	↑ 12.3	↑ 58.0
	파프리카	5kg	22,800	22,400	34,120	24,500	29,373	↓ 6.9	↓ 22.4
	딸기	1kg	6,500	7,600	8,520	8,400	8,113	↓ 22.6	↓ 19.9
	토마토	10kg	31,000	29,600	34,400	35,100	35,153	↓ 11.7	↓ 11.8
	방울토마토	5kg	26,400	20,400	22,600	22,250	25,187	↑ 18.7	↑ 4.8
	수박	1개	16,800	17,800	19,160	17,150	16,437	↓ 2.0	↑ 2.2
	과 일 류	사과(후지)	10kg	39,200	38,400	38,840	37,000	47,942	↑ 5.9
배(신고)		15kg	41,800	41,000	40,040	44,000	44,160	↓ 5.0	↓ 5.3

※ 가격변동폭이 30% 이내 ↑↓, 31~70% ↑↓, 70% 이상 ↑↓ 으로 표시함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4/03)	1주일전 (03/2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19,000	519,000	519,000	529,000	550,767	↓ 1.9	↓ 5.8
	느타리버섯	2kg	12,400	12,200	11,160	12,300	12,580	↑ 0.8	↓ 1.4
	새송이버섯	2kg	7,600	8,100	8,160	8,500	8,500	↓ 10.6	↓ 10.6
축 산 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904	7,854	7,752	7,904	6,262	-	↑ 26.2
	돼지고기(삼겹살)	100g	1,836	2,013	1,742	1,882	1,727	↓ 2.4	↑ 6.3
	닭고기	1kg	5,406	5,565	5,421	5,300	5,889	↑ 2.0	↓ 8.2
	계란(특란)	30개	7,474	7,372	7,344	5,217	5,548	↑ 43.3	↑ 34.7
	우유	1리터	2,529	2,529	2,529	2,549	2,476	↓ 0.8	↑ 2.1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7. 04. 03.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414 천원	5,417 천원	5,839 천원	↓ 0.1	↓ 7.3
	거세	6,164 "	5,948 "	6,949 "	↑ 3.6	↓ 11.3
송아지 (6~7월)	암	2,864 "	2,826 "	2,847 "	↑ 1.3	↑ 0.6
	수	3,351 "	3,326 "	3,415 "	↑ 0.8	↓ 1.9
육우(600Kg)		3,070 "	2,872 "	3,693 "	↑ 6.9	↓ 16.9
젖소수송아지(7일령)		168 "	168 "	236 "	- 0.0	↓ 28.8
돼지(110kg)		383 "	368 "	349 "	↑ 4.1	↑ 9.7
육계(원/kg)		1,570 원	1,784 원	1,373 원	↓ 12.0	↑ 14.3
계란(원/특란10개)		1,840 "	1,832 "	917 "	↑ 0.4	↑ 100.7
오리(원/kg)		2,500 "	2,500 "	1,667 "	- -	↑ 50.0

※ 한우(거세우) : 6,677천원/마리(△513)

- '15년 생산비(5,658)-'15년 송아지 가격(2,332)+현재 수 송아지 가격(3,351)
- 육우 3,798천원, 돼지 297천원, 육계 1,278원/kg, 오리 1,944원/kg, 계란 1,051원/10개, 우유 763원/ℓ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6.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비가림 하우스 열무 무경운 유기재배 시 계절별 수확 소요일수

□ 개발기술 내용

- 비가림 2중 비닐하우스 열무 무경운 유기재배 년 12작 수확가능
 - 봄(3~5월), 가을(9~11월)작형 : 파종에서 수확까지 23~26일 소요
 - 여름(6~8월)작형 : 23~24일 소요
 - 겨울(12~2월)작형 : 28~35일 소요

재배 기간 (월. 일)	5. 14.~6. 10.	6. 14.~7. 4.	7. 10.~8. 2.	8. 9.~9. 4.	9. 6.~9. 30.	10. 5.~10. 30.
수확량 (kg/10a)	1,998~2,242	2,107~2,270	2,418~2,476	1,275~2,226	3,211~4,242	1,760~2,574
수확 소요 일수(일)	27	23	23	26	24	25
재배 기간 (월. 일)	11. 5.~12. 3.	12. 5.~1. 9.	1. 27.~3. 3.	3. 5.~3. 31.	4. 2.~4. 23.	4. 24.~5. 15.
수확량 (kg/10a)	768~787	1,258~1,663	837~1,201	892~1,361	914~1,450	1,736~2,555
수확소요일수 (일)	28	35	35	23	23	26

※ 지역과 기후에 따라 수확시기 조절, 수확 지연 시 품질 저하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개발된 무경운 재배기술이 조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시군농업 기술센터에 정보제공 및 대농민 교육, 상담자료로 활용

□ 기술개발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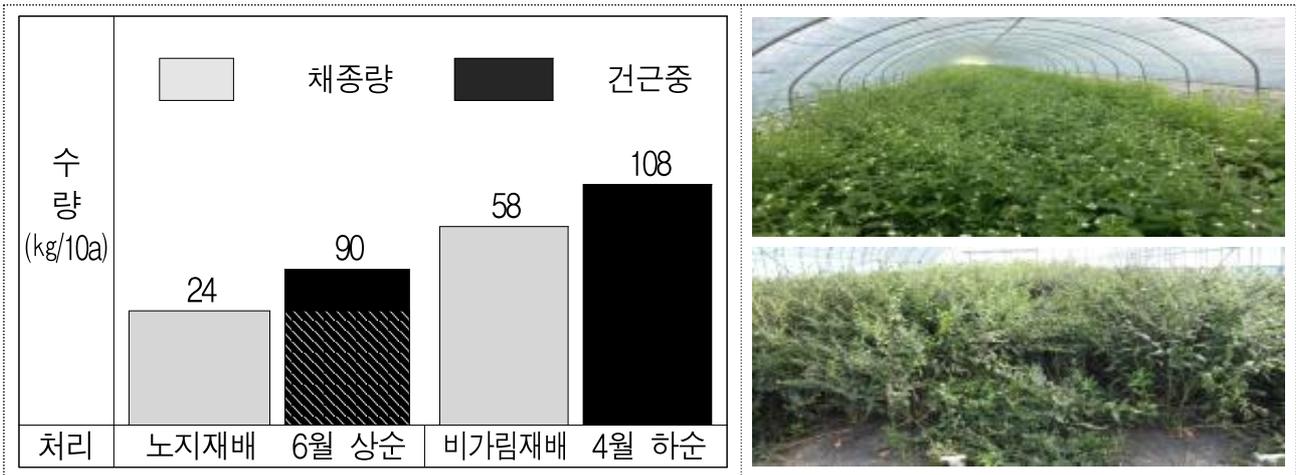
- 작부횟수 증가 : 경운 년 4~6기작 → 무경운 12기작(6~8작 증)
- 경운 비용 및 대농구상각비 절감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양승구

■ 지치 비가림 재배 시 적정 파종시기

□ 개발기술 내용

- 비가림 재배, 4월 하순 파종에서 지상부 생육량 증가로 인해 노지 재배, 6월 상순파종(채종 24, 근중 90kg/10a)대비 종실량 2.4배, 건근수량 20% 증수됨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노지 비가림 재배는 두둑높이를 20cm로 높게 만들어 흑색 부직포로 피복하여 활죽을 터널형태 세워 비닐로 덮어 4월 상·중순에 파종함
-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고품질 생약재 생산기술 영농 교육 및 홍보 강화
- 지치 재배단지 및 작목반에 재배기술을 활용하도록 현장교육

□ 기술개발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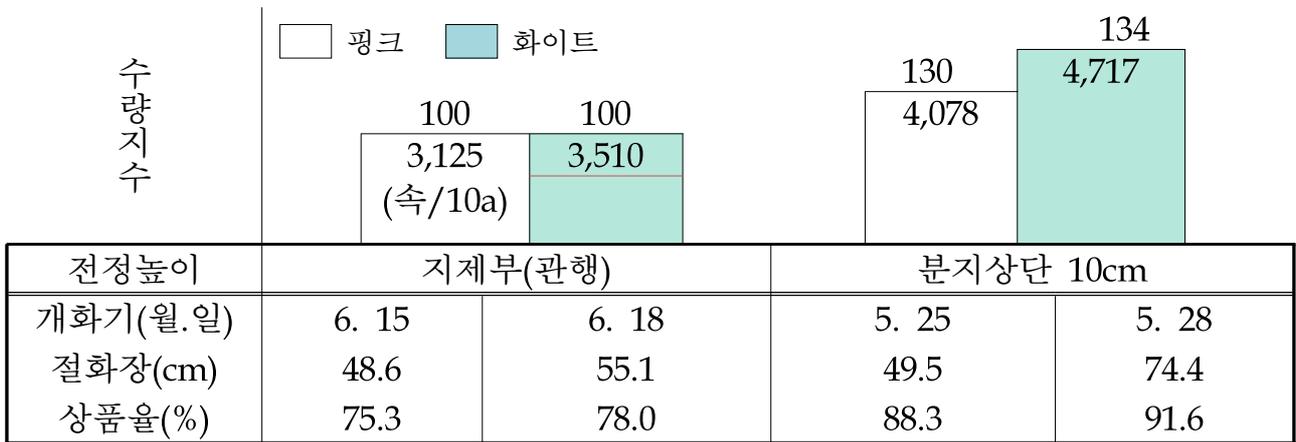
- 채종 및 건근수량 656,000원/10a 소득증대 효과
 - 손실 198천원(자재 148, 인건비 50) → 이익 854천원(채종 224, 건근중 630)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소 김명석

■ 부바르디아 배지경의 여름출하에 알맞은 줄기 전정 높이

□ 개발기술 내용

- 부바르디아의 전정높이는 지제부(관행)보다 전년 성장까지의 분지상단 10cm부위로 개화기 20일 단축되고 상품율 13% 증가
- 꽃수량(속/10a)은 지제부(관행) 3,125~3,510속 보다 30~34% 증수



【부바르디아 배지경의 전정높이에 따른 꽃수량】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부바르디아 절화재배 농가 또는 목본화훼류 현장 애로기술 보급
- 틈새화훼작물 재배농가를 위한 영농현장 교육 기술자료 활용

□ 기술개발 파급효과

- 줄기전정에 의한 상품율 증가 : 13%(지제부 75~78 → 88~92%)
 - 상품수량 증가분 : 평균 1,080속/10a(핑크 953, 화이트 1,207속)
- 부바르디아 절화의 조기 출하 : 6월 중순 → 5월 하순(20일 단축)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 벼꽃 만개시기에 맞춰 사료작물 파종 하세요 ~

- 옥수수 4월 상·중순, 수단그라스 4월 중·하순 적기 파종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여름철 풀사료인 옥수수 및 수수류의 파종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 적기에 파종 할 것을 당부했다.
- 여름철 사료작물 중 대표적인 옥수수는 영양가가 높고 가축이 좋아하는 작물로, 알곡과 줄기, 잎 전체를 담근 먹이로 만들어 사료로 이용 한다
- 옥수수 파종적기는 그 지역 벼꽃이 만개 되는 시기이며, 전남은 4월 상·중순 정도이다. 파종이 늦어지면 생육기간이 짧아 수량이 급격히 감소한다.
- 파종량은 25~30kg/ha이고, 비료는 ha당 질소 200kg, 인산 150kg 칼리 150kg, 퇴비는 토양에 비옥도에 따라 20톤 정도를 하는 것이 좋으며, 질소비료는 밀거름과 웃거름으로 50%씩 나누어 주고, 인산과 칼리, 퇴비는 전량 밀거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 풋베기용 수수류는 옥수수와 함께 생산성이 높은 풀사료로 파종 적기는 4월 중·하순이 적당하다. 파종량은 ha당 줄뿌림은 30~40kg, 흩어뿌림은 50~60kg으로 줄뿌림 보다 증량해서 파종 한다. 비료는 질소비료 200kg, 인산 150kg 칼리 150kg을 하고, 질소 및 칼리 비료는 밀거름으로 50%, 인산은 전량 주고, 1차 수확 후 웃거름으로 질소와 인산을 50%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차성충 기술보급과장은 “여름철 사료작물을 제때 파종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리플릿 배부 등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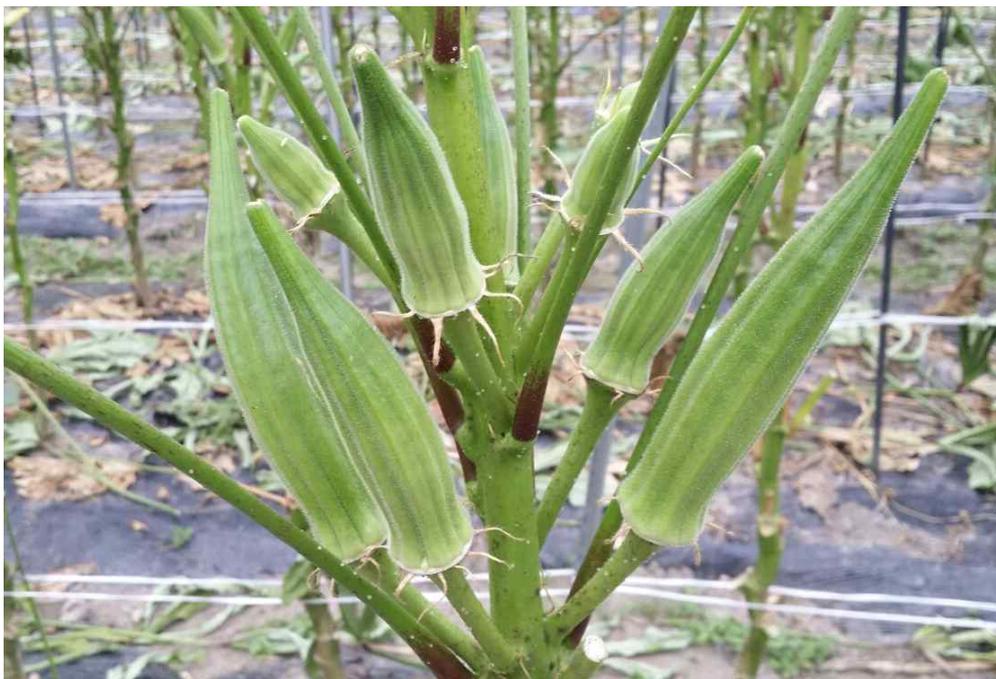
■ 아열대채소 오크라 육묘비용 절감 직파재배 기술개발

- 이른 봄 시설 내 2립직파로 육묘비용 80% 절감, 상품수량 8% 증대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에서는 우리지역 기후 온난화에 적응 할 수 있고 우리 몸에서 혈중 지방을 감소시키고, 위벽을 보호해 주는 『뮤신』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건강 기능성 채소인 오크라를 4~5년 전부터 도입하여 해남·장흥 등을 중심으로 보급에 나서고 있다.
- 우리지역에서 오크라재배는 3월 중순 전문 육묘장에 위탁하여 1개월 정도 모종을 키운 다음 추위가 어느 정도 물러간 4월 중순경에 하우스 본밭에 정식하여 10월 하순까지 장기재배를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는 전문 육묘장에 육묘 비용으로 1주당 종자 값 포함 450원, 10a당 1,100천원 정도를 육묘비로 지불하고 있어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 이에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우리지역의 따뜻한 기후적 특성을 살려 육묘비 등 생산비를 절감하고 수량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시설하우스 무가온 직파재배 기술을 개발하였다”고 한다.
- 이번에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오크라의 시설하우스 무가온 직파재배 기술은 50공 규격의 육묘 상자에 종자를 파종하여 한 달 동안 모종을 키워 4월 상·중순에 정식하는 관행 기술 대신에 남부 지방에서 하루 평균지온이 15℃ 이상 올라가는 3월 하순 무렵에 종자를 따뜻한 물에 담귀 싹이 트면 무가온 시설하우스 내 멀칭 한 이랑에 40cm 간격으로 2알씩 3cm 깊이로 파종하면 7~10일 정도면 싹이 지상으로 출현하게 하는 기술이다.

- 이 기술은 육묘 과정이 전혀 필요 없어 10a당 육묘비용을 80%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초기생육 촉진으로 상품수량도 육묘 재배 3,490kg 보다 8%인 285kg가 증수되어 170만원의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 농업기술원에서는 오크라에 대한 재배기술과 기능성 성분분석 및 요리법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해 오고 있는데 도내에서 생산된 오크라 대부분은 경기도 안산 등 수도권의 외국인 거주지역과 부산 지역 식당에 공급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 원예연구소 손동모 팀장은 “오크라는 10a당 800~1,000만원 정도의 조수익을 얻을 수 있는 소면적 틈새 소득작목으로 가치가 높아 우리 도 특성을 살려 조기 재배기술 개발과 함께 소비자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요리법 등을 개발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농가 소득 올리는 땅콩, 우수한 종자 준비부터

- 다수성·기능성 땅콩 품종 『신팔광·다안·흑생』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맛·수량성·건강기능성이 우수하며 소비자 선호도가 높고 농가에서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땅콩 새 품종을 소개했다.
- 땅콩은 비교적 생육기간이 긴 작물로서 4월 하순부터 5월 상순을 파종적기로 볼 때 파종을 위한 종자 준비를 곧 시작해야 한다.



【신팔광 반직립 초형】



【신팔광 종실모양】

- 『신팔광』 품종은 10a당 540kg에 이르는 최고 수량 품종이다. 가지수가 많고 반직립 초형이며, 100알 무게가 92g인 대립종이다. 기존 농가에 많이 보급했던 『팔광』 품종을 키는 더 작게, 알은 더 굵게, 포기 내 꼬투리 크기는 더 균일하게 개량한 품종이다.



【다안 소분지 초형】



【다안 극대립 종실모양】

- 『다안』은 가지 수가 적음에도 쓰러짐과 병해에도 강한 품종이다. 100알의 무게가 127g이나 되는 극대립 품종으로 수량성은 10a당 500kg에 달한다. 보통 가지 수가 적은 품종은 성숙기에 줄기가 웃자라 잘 쓰러지고 병해에도 약해 열매가 충실치 못한 단점이 있지만 『다안』은 이러한 점을 보완했다.



【흑생 반직립 초형】



【흑색 종실특성】

- 색(色)다른 품종인 『흑생』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안토시아닌 성분이 들어있는 검정땅콩 품종이다. 그 동안 국산 품종이 없어 외국 도입종을 일부 재배해 왔지만, 일반땅콩보다 알이 잘 영글지 않고 수량성도 낮아 비싼 가격으로 거래됐다.
- 『흑생』은 껍질이 얇고, 꼬투리수가 많으며 알이 충실히 잘 맺도록 개량했다. 수량성은 일반땅콩 품종인 『대광』과 같은 수준으로 높아져 10a당 425kg 정도이며, 100알의 무게는 69g인 중간 크기의 조숙종이다.
- 『흑생』의 당지수는 다른 식품에 비해 월등히 낮으며(20 정도), 각종 비타민, 무기질 및 양질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된다. 또한 세포의 활성산소 제거와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 성분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어 건강 식재료로써 주목받고 있다.
- 『신팔광·다안·흑생』 3품종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031-8012-7285)에 문의하면 분양 받을 수 있다.
 - * 출처 : 농촌진흥청

■ 배·복숭아 꽃 피는 시기, 평년보다 1~6일 빠를 듯

- 웃거름 1차 2월 하순, 2차 3월 중·하순 적기시용, 노균병 방제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올해 배·복숭아의 꽃 피는 시기가 지역에 따라 평년보다 1~6일 정도 빠를 것으로 예측된다며 인공수분 등 개화 시기의 농작업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당부했다.
-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만개기 예측 프로그램에 따라 3월 19일 기준 배 『신고』 품종과 복숭아 『유명』 품종의 꽃 피는 시기를 예측했다.
- 배 『신고』 품종의 만개기는 남부 지방인 울산에서 4월 11~13일, 광주 4월 10~12일, 진주 4월 13~15일로 평년보다 1~3일 빠를 것으로 예측됐다.
- 중부지방인 수원과 천안은 4월 19~22일로 평년에 비해 1~4일 빠르나, 지난해보다는 늦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 복숭아 『유명』은 남부지방인 청도에서 4월 9~11일, 중부지방인 이천·원주에서 4월 19~22일로 평년에 비해 3~6일 빠를 것으로 예측했다. 강원도 춘천(4월 21~23일)과 충북 충주(4월 20~22일)은 평년보다 1~4일 빠를 것으로 예측했다.
- 올해 1, 2월의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개화시기를 결정하는 3월 말과 4월 초·중순의 기온이 평년보다 약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개화기가 평년에 비해 약간 빨라지고, 지난해보다 2~3월의 기온이 낮아 지난해 개화기보다는 늦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 그러나 개화 시기는 현재 이후 기온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앞으로 이상 고온 또는 저온에 의해 개화기가 변화될 수 있으므로 과수원의 눈 발육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인공수분 등 농작업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
-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남부지방의 개화기간인 4월 상순과 중부지방의 개화기간인 4월 중순의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에 남부지방과 중부지방 모두 평년보다 빠른 개화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 조기 개화에 대비해 인공수분 작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보통 인공수분은 이슬이 걷힌 오전 10시 이후부터 오후 3시 정도까지가 좋으나, 다음날 날씨가 좋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늦은 오후까지 실시해도 된다.
- 반대로 개화기에 건조하면 암술의 수명이 짧아지므로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인공수분을 1회에 그치지 말고 2~3회 실시하는 것이 좋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과일나무 꽃피는 시기 이상기상 대비 철저히 해야

- 산지로부터 냉기류 유입이 많은 곡간지역 피해 우려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과일나무 개화기 전후 일시적 기온 저하에 의한 늦서리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기에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과일나무 꽃피는 시기 전후의 늦서리 피해는 결실불량, 변형과 발생 등 생산이 불안정해지고 품질이 떨어져 과수원에 큰 피해를 준다.
- 일반적으로 잎보다는 꽃이나 어린과실이 피해를 받기 쉽고 꽃이 피고 있는 중에는 배주(밑씨)가 저온에 약해 꽃피는 초기단계에서 피해를 받으면 꽃잎이 열리지 않거나 열려도 암수술 발육이 매우 나쁘고 갈색으로 변한다.
- 꽃이 피해를 입으면 암술머리와 배주(밑씨)가 검게 변하고 심한 경우 꽃이 피지 못하고 죽거나, 꽃이 피더라도 결실을 맺지 않고 수정이 돼도 기형과일이 되어 빨리 떨어진다.
- 늦서리는 대체적으로 낮 기온이 낮고, 오후 6시 기온이 10℃, 오후 9시 기온이 4℃ 이하로, 하늘이 맑고 바람이 없을 때 발생되기 쉽다. 과수원은 산지로부터 차가운 기류의 유입이 많은 곡간지역, 내륙기상으로 기온 변화가 심한 지역, 사방이 산지로 둘러싸인 분지에서 피해가 많다.

- 과일나무 발아가 시작되면 과수원에 설치된 서리 예방 장비를 미리 점검한다. 또 기상청 일기 예보나 경험적으로 늦서리 발생 우려가 높으면 연소법, 송풍법 또는 살수법을 이용해 서리 피해를 예방한다.
- 연소법은 톱밥, 왕겨 등을 태워서 과원 내 기온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10a당 점화수를 20개 정도로 하고, 배치는 과원 주위에는 많이, 안쪽에는 드물게 뒤서 과원 내부 온도가 골고루 올라가도록 한다.
- 방상선에 의한 송풍법은 철제 파이프 위에 설치된 전동 모터에 날개가 부착돼 온도가 내려갈 때 모터를 가동해 송풍하는 방법이다. 작동온도는 발아 직전에는 2℃ 전후, 개화기 이후에는 3℃ 정도 설정하고 가동 정지온도는 일출 이후 온도의 급격한 변화를 막기 위해 설정온도 보다 2℃ 정도 높게 한다.
- 살수법은 스프링클러를 이용해 물을 뿌리는 것으로 물이 얼음으로 될 때 방출되는 숨은 열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과수원 온도가 1~2℃가 되면 살수시스템을 가동하고 해가 뜬 이후에 중단한다.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차성충 과장은 “과수에 있어서 개화기는 한해 농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기상청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이고 저온, 늦서리 등 이상기상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벼농사의 시작! 벼씨소독으로 키다리병 예방

- 소금물가리기·미생물 활용 방제법 등 제시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벼키다리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벼씨소독 방법을 소개했다.



【벼 키다리병 (본답)】



【벼 키다리병 포자형성 모습】

- 벼키다리병은 해마다 발생해 피해를 주는 병으로 이삭 쫄 때 병원균에 감염된 종자가 1차적인 전염원이 되는 종자전염병으로 종자소독을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제 방법이다.
- 벼씨소독 기술 개발과 교육, 홍보로 지난해 못자리에서 병 발생이 대폭 감소했으나 일부 농가에서는 여전히 피해를 입고 있다.
- 벼씨소독을 할 때 먼저 소금물가리기를 통해 죽정이 벼를 골라내면 소독효과를 20~30% 높일 수 있다.
- 종자의 까락(까끄라기)을 없앤 뒤 메벼는 물 20L당 소금 4.2kg, 찰벼는 물 20L당 소금 1.3kg을 녹인 다음 벼씨를 넣는다. 물에 뜬 벼씨는 골라내고 가라앉은 벼씨를 깨끗한 물에 2~3회 씻은 뒤 말린다.
- 소금물가리기를 마친 벼씨는 적용 약제별로 희석배수에 맞게 희석한 다음 약액 20L당 벼씨 10kg을 30℃의 온도로 맞춰 48시간 담가두면 된다.

- 특히 병 발생이 심했던 지역 주변에서 생산한 벼를 종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선, 30℃ 물에 침투이행성 약제를 섞고 종자를 넣어 48시간 침지하고, 싹이 트기 시작할 때 다른 약제 1종으로 바꿔 24시간 침지하거나 습분의 처리 뒤 바로 파종하면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다.
- 해마다 같은 계통의 약제를 사용하면 내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2~3년을 주기로 약제를 바꿔주는 것이 좋다.
- 국내 벼 종자소독용 약제로는 총 19품목이 등록돼 있다.
-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벼 재배 농가에서 온탕침지로 소독할 때는 60℃의 물 300L당 볍씨 30kg을 10분 동안 담가두면 약제소독과 비슷한 소독효과를 볼 수 있다.
-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농가 뿐 아니라, 농약을 사용해 종자소독을 하는 농가에서도 약제처리 전 온탕침지 소독을 실시하면 방제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 이때, 온탕침지에 민감한 『고운벼·삼광벼·운광벼·일미벼·풍미벼·동진1호·서안1호·신운봉1호』 등은 위의 소독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발아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한편, 지난해에 수발아가 발생한 남부 일부지역에서 채종한 종자를 사용할 경우, 온탕침지 소독할 때 볍씨의 발아불량이 우려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일반적으로 수발아가 발생한 볍씨는 미질이나 종자활력, 발아율 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식용이나 종자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그러나 지난해 수밭아의 집중 발생으로 우량종자 확보가 어려워 수밭아 피해 종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종자밭아력을 검사해 밭아율 85% 이상인 종자에 대해서만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하지만 밭아율 85% 이상인 수밭아 피해 볍씨를 종자로 사용할 때 온탕소독을 하게 되면 밭아율과 입모율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돼 주의가 필요하다.
- 따라서 부득이하게 수밭아 피해 볍씨를 종자로 사용할 때에는 온탕소독을 자제하고, 소금물가리기를 실시한 뒤 등록된 약제의 사용방법을 준수해 철저하게 소독하는 것이 좋다.
- 한편 농촌진흥청은 전남농업기술원과 협업을 통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벼키다리병 방제에 대한 미생물 활용법을 개발했다.
- 농촌진흥청은 논토양에서 분리해 벼의 주요 병에 강력한 길항 작용이 있고 뿌리가 나는 것을 촉진하는 유용미생물을 선발해 특허 등록하고 전남농업기술원과의 공동연구를 수행해 벼키다리병에 대한 방제 활용법으로 개발했다.
- 이번에 개발한 벼키다리병의 친환경적인 방제법은 볍씨를 파종하기 전에 미생물 배양액에 단 한 번의 침지로 벼키다리병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기존에 활용중인 온탕소독법과 병행 처리할 때 최대 92%의 방제효과를 보였다.
- 이 방제법은 친환경 벼 재배에 적용할 때 기존의 소독법과 유사한 처리로 보다 우수한 효과를 낼 수 있어 일손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우수한 방제법이다. 때문에 안정적인 벼의 수확으로 친환경 벼 재배농가의 소득증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유기재배 차 생산을 위한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

- 차응애 방제는 4월 상순이 적기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유기재배 차 병해충 방제 기술을 개발하고, 적기방제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전남지역 차나무 유기 인증면적은 396ha로 전체면적의 33%에 머물고 있지만 2020년 4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유기재배를 할 때는 병해충 관리가 가장 큰 걸림들이어서 이에 대한 기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 2015년부터 유기재배 차에 발생하고 있는 병해충의 종류별 발생 시기와 피해정도를 조사한 결과, 붉은잎마름병, 떡병, 차응애, 애무늬고리장님 노린재, 동백가는나방 등이 차의 품질과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업기술원에서는 이를 관리하기 위해 유기재배에 적용 가능한 방제법을 개발하였고, 그 중 발생을 시작한 차응애의 경우 잎당 1~2마리가 되는 4월 상순이 방제적기이므로 고삼추출물 또는 님추출물을 살포해야 한다고 하였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7. 정책 동향

◆ 전남도, 전국 첫 농촌인력지원센터 발대

- 농협, 시군과 협력해 농촌 일손 부족 해결 나서 -
- 전라남도는 3월 29일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도, 농협, 시군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전라남도 농촌인력지원센터 발대식』을 개최했다.
- 농촌인력지원센터는 고령화, 부녀화가 심화되는 농촌의 일손 부족과 농번기 일시 인건비 상승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라남도가 전남 농협과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 인력이 필요한 농업인과 구직자의 희망 작업 유형기간, 임금 수준 등을 신청 받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적기에 적절한 인력을 공급하고,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안내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 사업비 15억원(도비 15, 시군비 35, 농협 50%)을 들여 여수시 등 15개 시군 지역농협에 21개 센터를 설치하고 전담인력 인건비, 센터 홍보비, 작업자 안전 및 최초작업자 현장실습 교육비, 원거리 작업자 교통숙박비 등 운영비를 지원한다.
- ※ 농촌인력지원센터(21개소) : 여수(여천농협), 순천(순천농협), 광양(다압농협), 고흥(풍양농협), 장흥(천관농협), 강진(강진농협), 영암(삼호농협, 영암낭주농협, 신북농협, 영암농협), 무안(무안농협), 영광(굴비골농협), 장성(장성농협, 삼서농협), 함평(함평농협), 해남(황산농협), 완도(청산농협), 진도(서진도농협), 신안(압해농협, 북신안농협, 신안농협)

* 출처 : 전라남도

◆ 농업기술원 쌀 안정생산 및 소비촉진에 앞장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고품질 쌀 안정생산 및 소비 촉진을 위해 「전남쌀산학협력단(이하 협력단)」을 구성하고 협력단을 중심으로 고품질 쌀 안정생산 및 소비촉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협력단은 농업기술원, 대학, 민간연구소,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기술 전문위원과 도내 벼 재배 선도농가로 272명, 4개분과(재배생산, 토양·작물보호, 가공, 유통·마케팅)로 구성되어 있다.
- 재배생산분과와 토양·작물보호분과는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위한 농가 교육 및 현장컨설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며 가공분과와 유통·마케팅분과는 쌀을 이용한 가공품 개발과 가공업체 기술지도, 소비 촉진을 위한 각종 전시, 품평회 등을 개최하여 쌀 소비 홍보 및 유통에 매진할 계획이다.
- 특히 협력단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쌀 소비량을 늘리고자 지역의 대학·산업체와 연계하여 쌀을 이용한 가공제품을 개발 유통시킬 계획으로 (주)농업회사법인 구례삼촌과 우리쌀 머핀, 쿠키, 호두과자를 순천대학교와는 쌀가루 전용품종인 『한가루』를 이용하여 쌀빵, 케익, 스콘개발을 추진한다.
- 차성충 전남쌀산학협력단장은 지속적인 쌀 소비량 감소와 쌀값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가 시름을 덜어주고자 “전남 쌀 적정 생산을 위한 3저·3고 운동”과 병행하여 추진하며, 이번에 선정된 업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쌀 가공품을 개발, 상품화하여 쌀 소비촉진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전남농기원, 밭작물 범용 이식기 개발 추진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가볍고 저렴하며 여러 밭작물에 적용 가능한 이식기를 (주)죽암기계와 공동 개발하여 올 하반기부터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개발 예정인 보행 1조식 반자동이식기는 무게가 60kg 정도로 매우 가볍고 가격은 250만원으로 저렴하며 여성 혼자서도 운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추·콩·옥수수 등 다양한 밭작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현재 유통되고 있는 동일한 성능의 이식기는 200kg 이상으로 무겁고 500~1,500만원으로 비싸며 2인이 운전해야할 뿐만 아니라 적용 작물이 한정되어 품목이 많고 규모가 작은 국내 밭 농업 특성 때문에 효율성과 경제성이 낮은 문제점이 있다.
- 이러한 문제 때문에 밭작물 이식 기계화율은 배추·고구마·무 및 고추 등은 1%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콩의 경우 이식과 파종을 포함한 기계화율이 22.8% 수준이다.
- 최근에 정부에서 밭 식량작물의 생산 확대와 자급률 제고를 위한 중장기 발전대책으로 밭 농업 기계화 촉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기계화율은 1년에 1%point 정도 미미하게 향상되는 실정이다.
- 전남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소 김동관 연구관은 이식기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나라 주요 밭작물의 규모에 적합하고 경제적이며 여성도 손쉽게 운용할 수 있어 이식재배 확대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다양한 작부체계 수립이 가능하여 경지이용률 제고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농촌노동력 부족 해소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8.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고흥군, 농기계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육생 33명 추가모집

- 고흥군은 오는 4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2017년 농기계 전문인력 양성과정 훈련생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 이번 추가모집 인원은 총 33명으로 일반실업자 및 연매출 1억 5천만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훈련비는 전액 무료다.
- 교육내용은 소형굴삭기와 지게차를 배우는 과정으로 기간은 10일이 소요되며, 한 기수 당 굴삭기는 15명씩 지게차는 20명씩 총 6회 95명을 대상으로 총 44시간을 이수하면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 신청은 훈련을 희망하는 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제유통과 일자리창출부서(☎061-830-6611) 및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 출처 : 고흥군



■ 보성군, 우량 씨감자 생산·공급체계 개선

- 생산비 절감 · 농가소득 증대, 일거양득 효과 -

- 보성군(군수 이용부)은 지역 특화작목인 감자 생산비의 획기적인 절감을 위해 올해부터 2019년까지 조직배양 우량 씨감자 생산·공급체계 개선에 나섰다.
- 보성군은 2010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직배양 씨감자 대량생산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씨감자 보급에 힘써 지역의 차별화된 특화 작목으로 육성해 농가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 7년간의 동일지역 사업으로 생산단지 내 연작장해가 점차 늘어나 보급종의 선별, 감염, 중량 등에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생산체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생산·공급체계 개선에 발벗고 나선 것이다.
- 그 결과 지난해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에서 씨감자 소피경 대량 생산기술을 개발해 증식단계를 축소해도 농가에 기본종 보급과 자가증식이 가능하고 오히려 재배 면적이 확대되어 농가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특히, 보성군은 이번 생산체계 개선을 통해 3년간 4억 8백만원의 예산 절감은 물론 2019년부터는 씨감자 기본종 농가 판매로 연간 6천만원의 군세입을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그동안 씨감자 보급은 『기본종-원원종-원종-보급종』의 4단계의 증식체계를 거쳐 보급해 왔으나, 올해는 원종, 2018년에는 원원종, 2019년에는 기본종 단계를 관내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 출처 : 보성군

■ 화순군, 복숭아 브랜드 경쟁력 강화 팔 걷어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대표 특산품인 복숭아의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 29일 화순군에 따르면 복숭아 재배농가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품질 좋은 복숭아를 생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현장애로 기술컨설팅』을 추진키로 했다.
- 4월 5일 관내 재배농가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능주면 원지리 농가 포장에서 열리는 이번 컨설팅은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팀이 주관, 농촌진흥청 현장애로 기술단이 참여한다.
- 특히 토양, 병해충, 수형관리 등 각 담당 분야 전문가가 현장에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 군은 3월 9일에도 자두 재배농가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컨설팅을 추진, 참여농가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 과수 중 가장 많은 재배 면적을 차지하는 복숭아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이번 컨설팅을 마련했다.
-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화순군농업기술센터(379-5423)로 문의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이와 관련, 복숭아는 화순을 상징하는 특산품으로 310여 농가 190ha에서 재배하는 등 전남 1위 복숭아 주산지로 전국적인 브랜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매년 96억여원의 조수익을 내고 있고, 다양한 품목의 고품질 명품 복숭아가 생산된다.

* 출처 : 화순군

■ 장흥군, 돈 되는 숲 『야생 녹차밭』 가꾸기

- 장흥군은 본격적인 녹차수확을 앞두고 야생 녹차밭에 대한 숲 가꾸기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 군은 전담 작업반 26명을 구성해 야생 녹차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칩덩굴, 대나무, 경합목 등을 제거하는 산림 소득형 숲 가꾸기에 돌입했다.
- 장흥 야생녹차는 천관산, 삼비산, 부용산, 용두산, 가지산 등 청정 임야에 고르게 분포(약 120ha)하고 있다.
- 전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야생녹차 채취는 곡우를 전후하여 4월 초~5월 초까지 이어지며, 연 1회 약 35톤을 채취한다.
- 야생 녹차로 만드는 『청태전』은 1200년의 역사를 가진 발효차로, 발효과정에서 과란색의 이끼가 낀 것처럼 변한다하여 그 이름이 붙여졌다.
- 녹차를 엽전모양의 틀에 박아내어 만드는 것으로 그 모양에 따라 전차, 돈차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 장흥군은 10여년 전부터 특화지원 육성사업으로 야생 녹차밭을 가꿔오고 있다.
- 군 관계자는 “장흥은 명차 청태전의 본 고장답게 예부터 녹차가 자생하는 군락지가 많다”며, “이를 잘 보전하고 가꾸어 미래 친환경 산림소득자원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장흥군

■ 강진군, 무료 토양검정으로 봄철 영농 시작

- 강진군이 3월 27일 무료 토양분석을 확대 실시해 과다 투입되는 비료량을 줄이고, 과학적 영농을 유도할 계획이다.
- 강진군이 추진하는 무료 토양분석은 작물이 필요로 하는 질소, 인산, 칼리 및 기타 양이온 등의 양분함량을 분석하고, 토양에 필요한 양분과 작물별 적정 시비량을 추천하는 사업이다.
- 영농이 시작되는 봄철은 작물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분을 토양에 보충하기 위해 밑거름을 주는 시기로 토양의 정확한 영양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올해 농업기술센터의 무료 토양분석 목표량은 약 5천 500개이다. 친환경, 직불제, 대표필지토양검정연구, 자체검정 등의 세부 분석사업이 추진되며, 분석결과의 적시·적량의 시비를 위해서 본격적인 영농철에 앞서 토양 분석을 의뢰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부터 농가들이 가장 많이 의뢰하는 친환경 토양분석은 유기농과 무농약으로 샘플을 구분해서 신청 받고 있다.
- 토양검사용 시료채취는 넓은 면적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필지당 5~6개 지점의 토양에서 1~2cm의 표토를 걷어내고 15cm 깊이의 흙을 채취해 골고루 섞어, 가는 체에 친 뒤에 500~600g 정도 (종이컵 분량)의 고운 흙을 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업인 상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토양검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작물연구팀 (061-430-3653)으로 문의 가능하다.

* 출처 : 강진군



■ 해남군, 고품질 황토 인삼재배 박차

- 동력파종기 5대 지원 등 생산기반 확충 -

- 해남군은 군 특화작목인 인삼의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해 올해 6억 8,000여만원을 투입해 기반시설 확충과 고품질 생산 지원에 나선다.
- 군은 올해 관내 30농가, 22.6ha를 대상으로 인삼 재배에 필수적인 해가림 시설의 신규 설치를 지원한다. 특히 재해예방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는 철재 해가림시설 1.6ha가 지원될 예정으로 해남군은 지난 2013년 시범사업 도입이후 매년 철재시설 전환을 통해 관내 인삼 재배면적의 13.2%인 13.7ha까지 철재 해가림 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 또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인삼 동력파종기 5대를 작목반 등에 지원, 농가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인삼 동력기는 기존 묘삼을 이식하는 방식 대신 본 포장에 씨를 직접 뿌릴 수 있어 ha당 20~30명의 소요 인력을 2~3명까지 줄일 수 있어 90% 이상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a당 2,000만원 이상의 종자비용도 1,800여만원까지 낮출 수 있어 인삼 생산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한편 해남인삼은 관내 44농가에서 104ha를 재배하고 있으며, 지난해 6년근 수확을 통해 79억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다. 기존 주산 단지가 논인삼을 주종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해남인삼은 풍부한 영양성분을 가진 황토밭에서 재배돼 사포닌 성분과 탄수화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고, 조직이 치밀하고 외관이 깨끗해 전국 최고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 출처 : 해남군

■ 함평군, 귀농·귀촌 지원정책 안내서 제작

- 귀농·귀촌 상담, 정보제공, 안내, 홍보자료로 널리 활용 -

- 함평군(군수 안병호)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 지원정책 안내서와 길라잡이 2종을 제작·배부했다고 28일 밝혔다.
- 지원정책 안내서에는 △용자 △농업 △축수산 △주민복지 △보건·의료 △기타 등 6개 분야로 나눠 다양한 지원정책을 자세히 안내한다.
- 용자 분야는 귀농창업자금 지원 등 10개 사업이, 농업 분야엔 농어업인자녀 학자금지원 등 62개 사업이 담겼다.
- 축수산은 친환경축산물 인증지원 등 32개 사업을, 주민복지는 영유아보육료 등 18개 사업을 안내한다.
- 출산장려금 등 24개 보건의료 사업과, 함평군인재양성장학금 지원 등 기타 11개 사업도 수록했다.
- 총 157개의 사업을 한데 모아 쉽고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제작해 함평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또 귀농·귀촌 길라잡이에는 귀농·귀촌 단계별 로드맵, 귀농·귀촌 정보제공 및 교육기관 현황, 주택신축 절차, 알아두면 유익한 농업관련 용어, 농업용 임대농기계 이용절차, 성공과 실패 사례 등을 담았다.

* 출처 : 함평군



■ 영광군, 옥당동부 공급 희망량 신청 안내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4월 5일까지 관내 모싯잎 떡 가공업체들을 대상으로 2017년산 『옥당동부』 공급 희망량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 영광모싯잎송편이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눈앞에 두고 있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모싯잎 떡 가공업체로부터 사전 신청을 받아 보다 안정적인 생산·공급 체계를 갖추어 가격 차별화 등 영광 모싯잎송편 명품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 군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옥당동부를 전량 구매하는 계약 재배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농민들은 옥당동부 계약 재배로 논농사 대체 작목을 통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있다.
- 이번 가공업체의 공급 희망량에 따라 2017년 옥당동부 생산면적을 결정할 계획이며 안정적 생산 및 구매와 동시에 조기 공급할 예정이다.
- 업체별로 최소 400kg/10가마 이상 신청 가능하며, 가격은 옥당동부 구매시기에 따라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 한편 2017년 영광 옥당동부 생산단지 조성사업 재배신청은 공급량이 확정되면 4월 20일 이후 각 읍·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계획을 공지할 예정이다.
-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 동부담당(350-4840)으로 문의하면 된다.

* 출처 : 영광군

■ 신안군, 맛나제 잡곡외식사업장 개소식 개최

- 신안군은 정부의 6차산업 지원정책에 따라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개 사업 국비 18억원을 들여 잡곡 자급률 향상 주산단지 육성사업과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을 민간에 지원하고 잡곡의 생산, 가공, 서비스산업과 체험, 외식, 관광을 연계하는 6차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 잡곡외식사업장 규모는 부지 5,078m²에 건축연면적 374m²로 내부 공간은 객실, 조리실, 체험실, 카페 등을 갖추고 있으며, 외부 공간은 정원과 주차장, 농사 체험할 수 있는 텃밭을 갖추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맛있는 향토음식과 함께 즐거운 휴식과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신안군은 그동안 정부가 중점 육성 지원하는 농산물의 6차산업화 수익모델 창출을 위해 건강과 직결된 기능성잡곡을 주력산업으로 선정하고 1차 고품질 잡곡생산, 2차 지역특산물과 잡곡을 이용한 가공상품 개발, 3차 잡곡외식사업장 및 체험장 구축을 위해 잡곡전문 메뉴개발과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금번 사업장 개소를 계기로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오감 만족형 잡곡전문 사업장을 민간사업자가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 아울러 잡곡외식사업장의 브랜드명인 맛나제(대표 이현숙)는 잡곡 외식사업장의 대내외적 홍보를 위해 현재 홈페이지(<http://www.matnaje.com>)를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중부권지역(자은·팔금·암태·안좌)의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쉼거리 등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출처 : 신안군

9. 해외 농업정보

◆ 니카라과에 KOPIA 센터 설치 업무협약

- 축적된 우리 농업기술과 경험을 중남미에 전수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3월 28일 니카라과의 마나과에 소재한 농업기술청(INTA)에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이하 KOPIA) 센터의 설치에 합의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 KOPIA는 우리나라의 농업기술 연구개발 경험이나 노하우를 전수해 개발도상국의 농업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다.
- 농촌진흥청은 2009년부터 해외에 KOPIA 센터를 설치하기 시작해 현재 19나라에서 KOPIA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니카라과 센터가 개소하면 모두 20센터가 된다.
-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에 따르면, 니카라과는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농촌에 거주하며, 이 중 63%는 빈곤계층에 속하지만 중미 국가 중 상대적으로 넓은 국토면적과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농업 분야 성장 잠재력이 높은 나라다.
- 농촌진흥청은 니카라과 정부로부터 2015년에 KOPIA 센터 설치 요청을 받은 뒤 두 나라 간 실무협의를 거쳐 농업기술 협력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
- 중남미 지역에는 현재 4나라에 KOPIA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무병 씨감자 생산이나 우량한 참깨 종자 보급을 통해 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해 왔다.

- 니카라과는 도움을 주는 농업연구기관에 협력해 현지에서 필요한 농업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함으로써 앞으로 니카라과의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은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올해 6월에 KOPIA 센터 소장을 파견하면서 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협력사업으로는 △주요 식량작물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채소와 두류(콩)의 유전자원 수집 및 우량품종 개발 등 니카라과의 농업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는 한편, 해당분야 전문가의 인적교류와 사업비 등을 지원한다.
 - 농촌진흥청 이규성 기술협력국장은 “KOPIA 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양해각서의 체결로 두 나라 간 농업협력에 대한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됐으며, KOPIA 협력사업을 통해 니카라과의 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해외농업 기술개발 사업으로 개도국에 대한 맞춤형 농업기술 지원과 자원의 공동개발을 통한 협력 대상국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유도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출처 : 농촌진흥청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7. 4. 03.(시카고 선물거래소)

□ 파종량 발표 이후 밀·옥수수 선물 가격 상승

○ 밀 선물시장 시황(▲1.3%)

- 밀 선물 가격은 미 농무부의 파종량 발표 이후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파종량 전망으로 전일 대비 상승 마감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시장은 대규모의 공급량으로 인해 하락 압력에 직면해 있음. 밀 선물 가격은 지난 1분기 동안 약 4.3% 상승하였음

○ 옥수수 선물시장 시황(▲1.9%)

- 옥수수 선물 가격은 지난 금요일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파종량이 전망되면서 전일대비 상승하였음. 옥수수 가격은 장중 3월 20일 이후 최고치인 부셸 당 3.66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소폭 하락하며 3.64달러에 마감하였음

○ 대두 선물시장 시황(▼1.8%)

- 대두 선물 가격은 금요일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파종량이 전망되면서 최근 수개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3월 1일 기준 재고량 또한 예상보다 많은 것으로 발표되면서 가격 하락에 압력을 더하였음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10.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청명·한식, 묘 주변 소각행위 삼가세요

- 전남도, 4월 1~6일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 운영 -

- 전라남도가 청명·한식을 맞아 성묘객과 상춘객 등의 급증으로 산불 발생 요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4월 1일부터 6일까지를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전라남도는 이 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 24시간 비상근무 체계 강화 △시장·군수 및 간부 산불 취약지 점검 △소각행위 단속 및 순찰 강화와 산불 현장지원단 운영 △감시인력 근무시간 탄력 조정(09~18시→10~19시) △산불진화헬기 공중계도·감시 등을 추진한다.
- 청명·한식에는 조상의 묘를 정비하고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어 제사를 지낸 후 뒷정리 과정에서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 우려가 높다.
- 최근 10년 동안 이 시기에 산불은 평균 4.3건이 발생해 4.1ha의 산림이 소실됐으며, 전남에서는 2008년 화순 20ha, 2009년 곡성 27ha, 2011년 보성 1.8ha, 2013년 나주 1.5ha 등의 대형 산불이 일어났다.
- 전국적으로는 평균 17건 69ha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며, 2009년 칠곡에서 407ha, 안동에서 66ha, 2016년 충주에서 54ha 등의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 산불 발생은 대부분이 제사 쓰레기나 묘 주변 정비에서 나오는 부산물 등의 소각행위에서 비롯됐다.
- 전라남도는 산림 100m 이내 연접지에서의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소각에 의한 산불이 발생하면 가해자를 검거해 관련법에 따라 강경 조치할 방침이다.
- 이는 올해 발생한 산불 13건 중 61%(8건)가 소각행위가 원인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 전라남도가 그동안 가해자 검거에 집중한 결과 올해 발생한 13건 중 8건의 가해자를 검거해 사법처리 중이며, 지난해 23건 가운데 16명을 검거해 검거율 69.5%를 기록 전국 평균(38.5%)을 훨씬 웃돌았다.
-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산불 대부분이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한다”며 “도민들이 산불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1천 500만원 이하였던 벌금이 3천만원 이하로 강화됐다.

* 출처 : 전라남도

◆ 수출기업 홍보 동영상상품 카탈로그 제작 지원

- 전라남도가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수출상품의 해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홍보동영상 제작 지원사업』 과 『수출상품 카탈로그 제작 지원사업』 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12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 두 지원사업 모두 지원 대상은 전년도 수출액이 1천만달러 이하인 전남지역 중소기업이나 수출 준비 기업이다.
- 『홍보동영상 제작 지원사업』 지원 규모는 20개 업체 내외다. 선정된 업체엔 최대 600만원까지, 총 제작비의 70% 이내에서 홍보동영상의 완성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 『수출상품 카탈로그 제작 지원사업』 지원 규모는 총 25개 업체다. 업체당 최대 250만원으로, 총 제작비의 70% 이내에서 편집 완성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 카탈로그는 A4용지 8쪽 이상 분량으로 업체별 1개 나라의 수출 대상국 언어를 표기해야 하며, 식품의 경우 한글을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제작업체 선정은 수출기업이 직접 한다. 수출기업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제작해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제작비를 지원받는다.
- 두 지원사업 참가를 바라는 업체는 전라남도 수출정보망(www.jexport.or.kr)을 참고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실(061-286-2453)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061-280-8032, 8035)로 문의하면 된다.

* 출처 : 전라남도

◆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청명(淸明), 24절기 가운데 다섯 번째 절기

- 2017년 4월 4일 청명, 24절기의 다섯 번째 절기로 청명(淸明)이란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뜻을 지닌 말이다.
- 청명은 음력으로는 3월에, 양력으로는 4월 5일경 무렵에 든다. 한식(寒食) 하루 전날이거나 같은 날일 수 있으며, 춘분(春分)과 곡우(穀雨) 사이에 있다.
- 청명과 관련된 속담으로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라는 속담은 청명과 한식이 겹치거나 하루 차이밖에 나지 않아 별 차이가 없음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 농사속담으로 『제비가 돌아와서 집을 거칠게 지으면 풍년이 들고 처마 안쪽으로 집을 지으면 흉년이 든다』라는 속담은 제비는 기후에 민감한 새로 제비집이 거칠다는 것은 4월경 토양 습도가 많다는 뜻이고 따라서 풍년이 예측되는 것이고, 제비집을 안쪽으로 지으면 그해 바람이 많고 날씨가 안 좋을 것을 예측해서 이다.
- 날씨가 본격적으로 따뜻해지는 시기라 농사를 준비해야 하는 때로 우리 조상들은 청명 무렵에 논밭의 흙을 고르는 가래질을 했다.
- 청명이란 말 그대로 날씨가 좋은 날이고, 날씨가 좋아야 봄에 막 시작하는 농사일이나 고기잡이 같은 생업 활동을 하기에든 수월하다. 곳에 따라서는 손 없는 날이라고 하여 특별히 택일을 하지 않고도 이날 산소를 돌보거나, 묘자리 고치기, 집수리 같은 일을 한다. 이러한 일들은 봄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겨우내 미루어 두었던 것들이다.
- 청명에는 찹쌀을 이용하여 청명 3일 전후로 청명주(酒)를 빚고 일주일 후에 마셨다고 한다.

* 출처 : 네이버지식정보



주간

전남농업정보

130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58213
Tel. 061-330-2593 Fax. 061-335-4199